

“무주,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무주군 7대 공약 발표

14개 시·군 소통 투여에 나서고 있는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 올림픽 출전국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태권도 아카데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에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천혜의 자원인 구천 들레길 활성화와 구천 테마로드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찾고 싶은 무주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리조트와 구천동을 잇는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 보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복잡한 덕유산 IC 앞 회전교차로 설치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높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리산과 무주-진안-장수를 연계한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관광 명소를 만들고, 지리산과 덕유산을 아우르는 산악트레킹 코스를 개발해 산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예비후보는 군산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재정경제부 사무관, 재선(제19~20대)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4866억원 확정

본예산보다 230억원 늘어난 규모

무주군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30억 원 늘어난 4,866억 원 규모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사항 해결, 민선 7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군 의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현안사업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지원 현안사업 등에 1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복지안정망을 강화하고, 용담댐 방류

피해지원 등 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39억 원,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 분야에 4억 원, 향토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장기교 재가설공사 등 주민안전 확보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44억 원,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무주군의 본예산 기준 재정규모는 4,636억 원으로 지난 4년간 평균 11.2% 증가율을 보였고,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는 전북도내 인구 재정기준이 비슷한 유사단체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다.

지방교부세도 15.0% 증가로 유사단체 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도 13.8%로 유사단체 기관 중 무주군이 두번째로 높아, 재정규모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재정규모가 큰 쪽 증가함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꾸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1분기 소비투자 부문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목표액 501억 대비 685억 원(115.98%)을 집행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전라북도 집행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회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2분기에도 균형 있는 재정집행과 내실 있는 재정운용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 포상 추진

진안군은 6일 관내 위생업소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친절위생업소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안군의 친절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친절업소로 선정되면 1개소 당 500만원 상당의 진안고인행복상품권이 지급되고, 친절업소 현판이 부착되며, 진

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친절 위생업소 추천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2022년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 추천 공고문’ 서식을 다운받아 추천서를 작성한 후 4월 15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Tel:063-430-2315, 이메일: tsh1127@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는 진안군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중에서 주민

추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친절도평가(온라인투표), ▲위생청결도(건물환경, 편의시설 등) 평가, ▲가점요소(행복상품권 가맹점 가입, 장애인편의시설 자율설치)등을 고려해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업소가 최종 선정되게 된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가 진안군에 있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진안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5명 모집

도시민 진안 거주 농촌문화 체험·안정적 귀농 돕는 프로그램

진안군은 도시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안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안에서 살아보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진안에 거주하면서 농사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면서 안정적인 귀농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형 중 재배품목 실습형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대표작목인 고추작목에 대해 농사준비부터 출하까지 영농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열 마을 탐방, 농지정보 습득, 다슬기 잡기 등 실제 농촌 생활에

적용이 필요한 내용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교육은 정천면 향기동 마을에 자리잡은 귀농인들이 맡아 현실적이며 꼭 필요한 귀농 이야기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으로 참가신청은 4월 17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영상 및 유선 면접을 통해 참가자를 확정하고, 5월 1일~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참가자에게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과 연수프로그램 및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끌시끌한 장수”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지역상권 활성화 공약 발표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라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사회적 경제 등 3대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연 50만 원까지, 연매출 6,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을 연 매출 3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연 5억 원 미만의 영세법인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지원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지역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군민 모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장수군의 경제 부흥을 이끌어 낼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정자립도 높이고 자주적 자치단체 건설해야”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무주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적 자치단체 건설을 요구했다.



다 11.13% 오른 61.93%이고 2022년 교부세 확보액 증가율이 전북도에서 최고였으며, 인구감소율은 군부 최저, 통합재정수지는 10억원 흑자를 내 재정자립도 향상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주군의 역점사업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적상산 산악열차, 구천동 33경 관광모노레일 설치, 남대천 경관 조성사업 등을 반드시 이루어 재정자립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스스로 커 나가는 자주적인 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최화식 장수군수 의원 조례안 2건 통과



장수군의 최화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자, 위생용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화식 의원은 “조례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될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내용을 신설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교통소외지역 학생 위한 통학버스 운행

무주군이 관내 교통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천면 삼곡리와 삼곡리, 무풍면 삼거리에 거주하는 실천면 중·고등학교 학생 38명(중학생 30명, 고등학생 8명)의 통학을 돕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운행해오던 귀가 통학택시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기반을 두고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무풍면 삼거리를 출발해 실천면 삼곡리와 삼곡리를 경유, 8시 20분에 실천중·고등학교에 도착하도록 설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